

막부사절이 본 근대 미국

- 村垣範正의 『航海日記』를 중심으로

鄭 應 洙*

(e-mail: chunges@nsu.ac.kr)

目 次

1. 서론
 2. ‘서쪽 바다’를 건너온 손님
 3. 막부사절이 본 근대 미국
 - 3-1. 놀라운 기공(奇工)의 나라
 - 3-2. 진실을 가지고 다스리는 오랑캐의 나라
 4. 결론
-

1. 서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60년 2월 13일¹⁾ 오전 7시, 미국의 프리깃함 포하탄(Powhatan)호가 요코하마(横浜)항을 출발했다. 이 배에는 신미 마사오키(新見正興, 1822-1869)²⁾와 무라가키 노리마사(村垣範正, 1813-1880)³⁾를 각각

*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 1) 이 날짜는 태양력에 의한 것으로, 음력을 사용한 『항해일기』에 따르면 1월 22일이다. 일본이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은 1873년(1872년 12월 3일을 1873년 1월 1일로 정함)부터지만, 이 글이 주로 일본사절의 미국에서의 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한다. 음력은 필요할 경우에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 2) 1822년 막신(幕臣) 미우라 요시아키(三浦義韶)의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1829년 오사카마치부교(大坂町奉行) 신미 마사미치(新見正路)의 양자가 되어 가독(家督)을 이었다. 1859년 7월 외국부교(外國奉行)에 취임하고 8월에 가나가와부교(神奈川奉行)를 겸직했다. 이후 견미사절단의 정사로 미국을 다녀온 다음 외국부교전임(專任)이 되었지만, 개국파였던 대로(大老) 이이 나오키(井伊直弼)가 살해당한 뒤라서 미국에서 얻은 신지식을 살릴 수가 없었다. 1862년 6월에 이세노가미(伊勢守)가 되었다가 1864년 9월 면직되었다. 1866년 12월 은거했다가 1867년 48세로 죽었는데, 이후 신미가는 몰락하고 말았다.

정사와 부사로 하는 77명의 일본사절단이 타고 있었다. 제1차 견미사절 혹은 만연(万延) 견미사절이라 불리는 이들은,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들이 탄 포하탄호는 미동인도함대 소속으로 1850년 버지니아에서 건조된 군함이었다. 3개의 마스트와 1개의 굴뚝을 가진 기범선(機帆船)으로 배의 양옆에 커다란 외륜을 장착하고 있었다⁴⁾. 배수량은 2,415톤으로 지금으로 보면 연안용 선박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는 대포를 11문이나 장착한 제1급의 거함이었다. 1854년 페리(Matthew C. Perry, 1794-1858)제독이 미일화친조약을 맺기 위해 재차 내항했을 때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 밀항하기 위해 잠입한 배가 바로 이 포하탄호였고, 2년 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곳도 바로 이 포하탄호의 함상이었다.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4월 24일(윤3/5) 스페인령 파나마에 도착한 사절단은 다음날 하선하여 파나마철도회사가 특별히 준비한 8량짜리 기차로 돌아왔다. 파나마운하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가 완성된 것은 이로부터 54년 후인 1914년이다. 따라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파나마항에서 카리브 해의 아스핀월항(지금의 콜론) 구간은 기차를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절단은, 몇몇 표류민을 제외한다면 최초로 기차를 타는 일본인이 된다.

기차를 타고 파나마 지협을 통과해 아스핀월항에 도착하니 미 해군의 로아노크(Roanoke)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배는 일본사절단을 태우고 가기 위해 여기서 무려 10개월이나 정박하고 있었다. 로아노크호에 승선한 사절단은 5월 14일(윤3/25) 워싱턴에 도착하여 18일(윤3/28)에는 15대 대통령인 뷰캐넌(James Buchanan, 1857-1861)을 만나 국서를 교환하고, 22일(4/3)에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때의 심경을 정사 신미는 그의 미국 시가 기행문인 『아행영(亞行詠)』에서 “모여드는 나라의 관리들에게, 주군의 명 전하고 돌아가는 이 기쁨이여(あつまれる国の司にわが君のあふせつたへて帰る嬉しさ)⁵⁾”

3) 1813년 에도에서 하타모토(旗本) 무라가키 노리유키(村垣範行)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856년 7월 하코다테부교(箱館奉行)가 되고 1858년에 외국부교, 다음해에는 가나가와부교를 겸직했다. 견미사절의 부사로 미국에 다녀온 뒤에, 프러시아와의 수호통상조약체결 일본측 전권으로 조인에 임했다. 1861년 러시아 함대의 쓰시마 점령사건을 처리하고 하코다테항의 포대 건설을 서둘렀다. 1863년 6월에는 사쿠지부교(作事奉行)가 되었지만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일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880년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4) レイモンド服部, 『77人の侍アメリカへ行く』, 講談社, 1968년, 19쪽.

5) 新見正興, 『亞行詠』, 『万延元年遣米使節史料集成全七卷』第2巻, 日米修好通商百年記念行事運営會編, 風間書房, 1961년, 370쪽. 참고로 이 『아행영』은 문학적 가치는 있지만, 견문기로서의 가치는 적다. 왜냐하면 와카(和歌)와 와카를 지은 동기나 주제, 날짜, 장소 등을 적은 고토바가키(詞書)

라 읊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책임자로서의 기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시이다.

사절단은 이후 처음 접하는 근대문물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관찰한다. 볼티모어, 필라델피아를 거쳐 6월 16일(4/28) 뉴욕에 도착한 사절단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25일(5/8)에는 뉴욕시 주최 일본사절 환영 대무도회에 참석했다. 그러다가 6월 30일(5/13) 나이가가라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라 11월 8일(9/28) 요코하마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귀로는 대서양, 인도양 항로를 이용했으므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여행이었다. 총 149,180리의 여정.

『항해일기』는 이 사절단의 부사였던 무라가키가 귀국한 다음해인 1862년에 쓴 미국 견문기이다. 전 3권으로 되어 있는 이 일기에는 처음 근대 문물을 접한 저자의 느낌이 실로 자세하게 적혀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문화(異文化) 접촉의 체험담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 『항해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사절단이 근대화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⁶⁾. 다만 그전에 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일본인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2. ‘서쪽 바다’를 건너온 손님

제1차 견미사절. 사상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사절이었기에 이들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절단이 처음 밟은 미국 땅인 샌프란시스코⁷⁾는 말

로 이루어진 시가 기행문(歌文紀行)이기 때문이다.

- 6) 『항해일기』를 다룬 글 중에서 レイモンド服部の 『77人の侍アメリカへ行く』(講談社, 1968)와 宮永孝의 『万延元年の遣米使節団』(講談社, 2005)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둘 다 사절단의 일정을 시간적 순서를 따라 쫓아가면서 해설을 붙인 것으로,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나머지는 橋川文三의 「村垣淡路の文明感覺」(『学鏡』, 丸善, 1960.7.)과 같은 짤막한 글이나 자료집에 실린 해설류 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무라가키가 근대 미국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글은 없다.
- 7) 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기 전에 하와이에도 들렀지만, 하와이는 당시 미국 영토가 아니었다.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된 것이 1898년이므로, 견미사절단이 방문한 1860년에는 아직 카메하메하 4세가 다스리던 독립왕국이었다. 따라서 견미사절단이 처음 밟은 미국 땅은 샌프란시스코였다. 1776년 프란시스코파 선교사에 의해 건설된 샌프란시스코는 1848년이 될 때까지 500명 정도가 사는 한적한 시골 어촌에 불과한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1848년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소위 골드러시 때문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었다(宮永孝, 앞의 책, 26쪽). 금을 찾아 미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온 사람들이 1849년 1년 동안에만 8만을 넘었다고 한다. ‘49년의 노다지꾼들(Forty niners)’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배로 남미대륙의 남단을 돌아오는 코스나 파나마 지협에 급유하는 코스, 아니면 인디언의 습격을 무릅쓰고 포장마차로 대륙을 횡단하는 코스를 택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는데, 사절단이 방미할 당시의 인구는 10만 정

할 것도 없고, 워싱턴과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도 사절단이 지나가는 연도에는 떠나면 동양에서 온 사절단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환영 행사 중에서 가장 성대했던 것이 뉴욕의 행사였다.

행렬이 브로드웨이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정적이 군중을 지배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인들이 모습을 나타내자 남자는 모자, 여자는 손수건을 흔들며 열광하며 환영의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의 환영에 사절들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로 답례했는데, 사절 중의 하나는 지팡이 끝에 손수건을 매달아 흔들며 군중에게 답례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든 것은 군중 사이에서 모욕적인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라델피아에서 사절을 모독하는 언동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모두가 반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행사를 유쾌하게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⁸⁾.

6월 16일(4/28) 오후 2시 30분, 맨해튼 남단에 위치한 캐슬 가든(현재의 배터리공원)에서 하선해 브로드웨이를 향해 다가오는 일본사절단의 행렬을 보고 열광하는 미국인의 모습을 《뉴욕 헤럴드지》는 위와 같이 전하고 있다.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랭크 레슬리 일러스트레이트신문》 6월 30자에 실린 아래의 에칭화이다⁹⁾.



행렬은 기마경관을 선두로 해서 용기병대, 공병대, 군악대, 근위병, 일본사절단, 뉴욕시 관계자, 경포병대, 공병대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경찰대가 연도

도였다고 한다(レイモンド服部, 앞의 책, 95쪽).

8) 레이몬드服部, 앞의 책, 267쪽에서 재인용.

9) 『遣米使節三船』(東善寺 발행 리플릿, 2007년)에서 재인용.

의 좌우에 배치되어 사람들이 사절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동원된 병사의 수만 해도 약 6,500명이라 한다¹⁰⁾. 연도에는 구경꾼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각 건물에는 미일 양국의 국기와 일본사절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들로 수를 놓았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는 기사인데, 한편으로는 이들을 멸시하는 분위기도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연도를 가득 메운 구경꾼 중에 당시 41세의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도 있었다. 『풀잎(The Leaves of Grass)』이란 시집으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휘트먼이 이날의 모습을 보고 지은 시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되는 「브로드웨이의 대행렬(A Broadway Pageant)」이란 시이다.

서쪽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부터 이곳에 온,
예의 바르며 거무스레한 얼굴을 하고 두 자루 칼을 찬 일본사절들,
모자도 없이, 지분을 열어젖힌 4륜 마차에 기대어 엄숙하게,
오늘, 맨해튼을 지난다¹¹⁾.

문장이 새겨진 정장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채 4륜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절단의 모습에서, 휘트먼은 사무라이의 기품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다. ‘서쪽 바다’, 즉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동방’에서 온 손님들이었기에. 그런데 여기서 관용적으로 “동방(동쪽)‘이라 썼지만 왠지 어색하다. ‘서방(서쪽)’이라 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서방’이 맞는 말이다. 유럽에서 볼 때 일본이 ‘동방’이지, 미국에서 보면 ‘서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휘트먼도 ‘동방’이라는 말 대신 ‘서쪽 바다’를 건너왔다고 했을지 모른다.

한편 일본사절들도 자신들을 가리켜 ‘동쪽’이라 표현하고 있다. 국서 전달식이 끝난 뒤의 기쁨을 노래한 무라가키의 시에 “오랑캐들도 우러러 보는구나, 동쪽에 있는 우리 일본국의 빛을(えみしらもあふぎてぞ見よ東なるわが日本の 国の光を)¹²⁾”이란 교카(狂歌)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을 ‘동쪽’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

10) 宮永孝, 앞의 책, 195쪽.

11) Over the western sea, hither from Nippon come,
Courteous, the swart-cheek'd two-sworded envoys,
Leaning back in their open barouches, bare-headed, impassive,
Ride to-day through Manhattan.
원시는 <http://www.bartleby.com/142/101.html>(검색일:2010.5.10)에서 인용했고,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했다.

12) 村垣範正, 『航海日記』, 『世界ノンフィクション全集』14, 筑摩書房, 1961년, 225쪽.

다. 미국의 ‘서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서 사용한 ‘동쪽’이란 표현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중국이나 조선에서 보면 일본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사절단의 일본견문기 제목들이 『해동제국기』, 『동사록』, 『동사일록』, 『일동장유가』, 『일동기유』처럼, 모두 ‘동쪽’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표현이 일본에서도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무라가키도 무의식적으로 ‘동쪽’이란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뉴욕 해럴드지》의 기사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사건이란 무엇인가? 《하퍼스 위클리지》의 다음 기사를 보기로 하자.

행렬이 지나갈 때 불쾌하고 친박한 야유가 구경꾼 사이에서 날아왔다.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하층계급의 주택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일례를 들면 환영위원인 어느 해군장교는 “어이, 견장(肩章)단 놈, 네가 데리고 가는 게 네 원숭이나?”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유감스러운 일은, 사절단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농담들을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일본인 몇 명이 듀풍대령과 포터씨를 찾아와, “어제 관중들의 지독한 야유로 미루어 보니, 미국인에게 우리 일본인들이 매우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일본인들이 보면 미국인의 복장이나 행동도 야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기묘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인은 분명히 야비한 관중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것이다¹³⁾.

사절단이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행진할 때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 중에서 일본사절을 원숭이라 부른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절단이 우리가 보면 당신들도 이상하게 보인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동양의 키 작은 사절단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볼티모어에서는 호텔의 발코니에서 소방훈련을 구경하던 정사의 일본식 상투(丁髷)를 튼 머리에 소방수가 자기의 젖은 모자를 씌워, 사절단을 웃음거리로 만든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극히 부분적인 사건들이고 사절들은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사절은 약간의 멸시와 더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이들이 근대화한 미국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13) レイモンド服部, 앞의 책, 234쪽에서 재인용.

3. 막부사절이 본 근대 미국

3-1. 놀라운 기공(奇工)의 나라

대형 비행기를 타면 안락하고도 신속하게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예도 말기의 미국여행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박 여행이었다. 사절단에 임명되자 무라가키는 이런 대임을 맡아 오대주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으니 실로 남아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며 호기를 부리지만,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전술한 바와 같이 무라가키 일행은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 가는 곳마다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새로운 근대문명의 산물을 수없이 접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접할 때마다 일본과 의식적·무의식적인 비교를 행하며 때로는 독선적이라 할 수 있는 감상을 말하는 무라가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먼저 눈을 놀라게 하는 기공(奇工)의 나라였다.

사절단은 5월 24일(4/5) 워싱턴의 해군조선소를 방문한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여럿 있었는데, 벽돌로 지은 커다란 공장 다섯 동에는 증기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절단은 먼저 반사로와 용광로 등이 설치된 공장에 들러 용해된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대포를 만드는 모습을 본 다음, 증기해머로 작업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에 대해 무라가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또 이쪽에 증기 해머라고 해서 높이가 6척이나 되는 수 천관 나가는 쇳망치를, 증기기관을 이용해, 우리들이 한 손으로도 자유롭게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밑에는 모루가 있다. 이 건물 한쪽 귀퉁이에서 돌레가 3자나 되는 철봉을 불에 달궈, 증기기관을 이용해 이 모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댄 다음 위에 있는 해머를 들어 올려 제대로 치면 단번에 돌로 나뉜다. 혹은 커다란 쇳을 달군 다음 돌을 연결해 가볍게 두드리며 돌리면, 금방 커다란 닻이 만들어진다. 증기기관으로 여러 가지 세공(細工)을 하는 모습, 눈을 놀라게 하는 기공(奇工), 붓이나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대포 속에 송곳을 넣고, 곁을 쥐고, 또는 대포알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백개나 만들어 낸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둥근 공, 관을 만들고 동판을 펴는 것 등이 특히 기이(奇)하다. 이 기계는 우리 일본에서도 사용한다면, 국익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⁴⁾.

14) 村垣範正, 앞의 책, 236-237쪽.

またこなたにストウム・ハーメル(スティーム・ハンマー、蒸気槌)とて、鉄の高さ六尺ばかりもある数千貫のものを、蒸気の仕掛けで、おのれらが片手でも自由に上下できるものがある。下には鉄の盤がある。この家のすみで、まわり三尺もある棒鉄を焼き、仕掛けでこの盤にのせてほうちょうをあて、上の鉄をあげて十分に打てば、ひと打ちで二つになる。あるいは大きな鉄を焼き、二つ継いで軽く打ちながらまわすと、たちまち大きなかりができた。蒸気仕掛けで種々の細工をするさま、目を驚かした奇工、筆にも言葉にもつくしがたい。大砲の内部に錐を入

그는 증기 해머를 비롯해 증기기관을 이용한 여러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눈을 놀라게 하는 기공’이라고 했다. 사람이나 말, 혹은 수차 등의 힘 밖에 모르던 그에게 증기기관이 뿜어내는 엄청난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공’이니 ‘기이’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증기기관의 힘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가 이 기계를 일본에서 사용하면 국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¹⁵⁾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증기기관이 갖고 있던 엄청난 파워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가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든 이래, 이 기관을 다른 작업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광산이나 탄광에서 물을 퍼 올리는 데는 물론 방직기계를 돌리거나 풀무를 움직이는 데에도 증기기관이 사용되었다. 이 기관을 운송수단에 응용한 것이 바로 증기기관차였다. 그리고 이처럼 증기기관이 널리 사용되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산업혁명이다¹⁶⁾.

미국에서도 증기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기계와 생산기술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1807년 로버트 풀턴(Robert Fulton, 1765-1815)이 세계 최초의 증기선 클러몬트호를 만든 이후, 동력직조기나 자동수확기 등이 잇달아 발명되면서 미국은 공업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농업·섬유·철강·운송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섬유와 철강은 당시 세계 무역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세계열강의 대열에 당당히 끼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⁷⁾. 그리고 무라가키는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 산업혁명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목격한 것이었다.

물론 그가 증기기관을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을 출발하기 전인 2월 10일(1/20) 함장의 안내로 포하탄호의 함내 견학을 할 때 기관실에서 증기

れ、外をけずり、または大砲の弾丸が見るみるうちに百の数もできた。手詰めの玉、ドンネル管を製し、銅板を延べるなど、ことに奇なり。この機械はわが国でも用いたなら、国益は言いようなく大きいと思われる。

15) 무라가키가 보인 이러한 태도, 즉 증기기관을 보고 단순히 놀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르다. 무라가키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근대문명을 공식적으로 처음 접한 사람은 제1차 수신사절의 김기수인데, 그도 증기기관을 처음 보고는 무라가키와 마찬가지로 ‘기공’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이를 배우라고 권하자 거절한다. 즉 증기기관을 보고 ‘기공’이라 생각한 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같았지만, 한 사람은 이를 배우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거절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근대문명을 처음 접했을 때 보인 두 나라의 차이이겠지만, 자세한 것은 정응수의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한국학보』 63집, 일지사, 1991년 여름호)을 참조할 것.

16) 광영직, 『과학기술의 역사』, 북스힐, 2010년, 179-185쪽.

17) 유종선,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 가람기획, 2006년, 167-170쪽.

기관을 보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증기기관을 본 다음 기관을 이용해 여러 기구를 만드는 모양이 눈을 놀라게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그는 증기기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4/6(3/17), 4/25(윤3/6), 5/20(4/1)의 일기). 또 박물관에서 증기 기관의 모형을 보고는 좀 더 천천히 보고 싶었지만, 사절단을 따라다니는 미국인들 때문에 빨리 돌아왔다며 매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증기기관에서 받은 무라가키의 충격과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일 것이다.

5월 28일(4/9) 방문한 천문대에서 경험한 망원경도 그를 놀라게 만든 기계였다. 저녁 무렵 방문한 천문대에서 먼저 측량 기계와 전신기, 항해 중 배의 위치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크로노미터 등을 구경했는데, 이 기계들은 배가 항해에 나갈 때 빌려 갔다가 귀향한 후 반납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다 해가 저물자 3층짜리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길이가 3미터 정도 되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망원경의 제일 끝에 있는 렌즈는 직경이 2자나 되는 것 같다. 좌우에 여러 기계를 설치해 굴신이 자유롭다. 그가 달에 맞춰서 보여줬는데 반달의 이지러진 부분은 얼음을 깨트린 것 같이 렌즈에서 비어져 나왔기 때문에, 한쪽 끝에서부터 보아 나갔더니 달 속의 모양이 지구도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월궁도 하나의 세계로 간주해 **국, **항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실로 구름에 사다리를 걸쳐 건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잘 보인다. (중략) 실로 놀랄만한 기계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것은 열에 하나나 둘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대개 측량술 등은 그들이 잘하는 일이기에 뜻있는 자가 유학한다면, 이익도 많을 것이라 생각할 따름이다¹⁸⁾.

인용문에 나오는 그는 천문대장을 가리킨다. 먼저 달을 관찰했는데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달의 모습에 놀라, 구름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라 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도 인용하지 않았지만 목성은 보

18) 村垣範正, 앞의 책, 242쪽.

さて望遠鏡の一番先の鏡は直径二尺もあるべし。左右に種々の機械を就けて、屈伸自由なり。かれが月にあてて見せたが、半月の欠けたところは氷を砕いたごとく、鏡をはみだすので、片はしから見てゆくと、月中の文様は地球図を見るに等しい。かれは月宮も一世界と見て、何の国、何の港と名づけたという。じつに雲に梯子をかけてわたる者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怪しむほどよく見える。(中略)じつに驚くべき機械なり。

質問したいことも数々あるが、通弁を必要とするから、こういうことについては、十のうち一、二を理解できるだけである。およそ測量術などはかれらの長ずるところであるから、有志の者が留学したら、益も多いことであろうと思うのみ。

름달 옆에 별이 붙어 있는 모양이고 토성은 달에 고리를 씌운 모습을 하고 있다며 그림을 덧붙여 설명한 다음, 실로 놀랄만한 기계라고 감탄하고 있다. 그 먼 곳에 있는 별을 바로 눈앞에 있는 듯이 보여주는 천체망원경의 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뜻 있는 자가 유학하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 말한 것도, 천문대에서 받은 그의 충격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무라가키가 방문한 이 천문대는 미 해군 천문대(United States Naval Observatory)를 가리킨다. 미 해군의 공식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천문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미 해군에게 필요한 크로노메타나 항법도, 기타 항해 장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 1830년에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업무가 확대되면서 민간에게 시보를 제공하는 일도 겸했는데, 지금도 GPS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은 이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시각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1893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으므로, 무라가키가 방문한 곳은 포기 바텀(Foggy Bottom)에 있던 원래의 천문대였다¹⁹⁾.

나룻배가 기차를 싣고 강을 건넌 일도 그를 놀라게 했다. 사절단이 볼티모어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를 향해가다가 메릴랜드주 북동쪽에 있는 하브르 드 그레이크스(Havre de Grace)란 동네에 도착했을 때였다. 앞에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서스키한나(Susquehanna)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이 마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때 워싱턴에서부터 사절단을 안내하던 듀퐁 대령이 기차를 타고 강을 건널지 아니면 배로 건널지를 묻는 것이었다.

기차를 멈춘 다음 듀퐁이, 이대로 갈까 아니면 배를 탈까 하고 묻는다. 강이니까 배로 건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걸 묻는구나 하며 대답도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기차를 탄 채로 벌써 강 북편에 나와 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길고 평평한 나룻배가 증기선이다. 증기차가 달려 증기선에 탔기 때문에 증기를 멈추고 배의 증기로 달린다. 강 건너편에서 올라와 있던 커다란 잔교를 내리고 배의 이물을 갖다 대자, 기차의 증기를 운전해 육상으로 달려 나갔다. 기이한 일로 놀라울 뿐이다. 잠들어 있던 사람은 이 대하를 건넌 것을 알지도 못했다²⁰⁾.

19) <http://www.usno.navy.mil/USNO/about-us/brief-history>(검색일:2010.7.5)

20) 村垣範正, 앞의 책, 250쪽.

車を止めてジュボントが、このまま行くかまたは船に乗るかと言う。川だから船でわたるのに、あやしいことを言うものだ、と答えもせずにあたりを見ると、車に乗ったままはやくも川中に出ている。いかなるやと聞くと、長く平らなわたし船は蒸気船である。蒸気車は走って蒸気船に乗ったので蒸気を止め、船の蒸気で走る。川のむこう岸に大きな棧橋がはねあがっているのをおろし、船のへきを押しつけると、車の蒸気を運転して陸上に走った。奇なること驚くばかりなり。眠っていた者は、この大河をわたっ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

당황해하는 무라가키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다. 육지에서는 기차, 물에서는 배라고 생각하고 있던 무라가키로서는, 기차를 탄 채로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는 듀퐁대령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사절단이 타고 있던 기차가 강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당황하여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열차 페리가 이미 사절단이 탄 기차를 통째로 싣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도강 방법을 접한 무라가키는 너무 기이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열차 페리(Train Perry)는 기차를 운반하기 위해 고안된 배로서, 1833년에 스코틀랜드의 몽크랜드 앤드 킬킨틸로크(Monkland and Kirkintilloch) 철도회사가 포스 앤드 클라이드(Forth and Clyde) 운하에서 화물열차를 탑재한 배를 운항한 것이 시초였다. 미국에서는 1836년 4월에 서스키한나호가 메릴랜드주의 하브르드 그레이스와 페리빌(Perryville) 사이의 서스키한나 강을 운항한 것이 최초였다²¹⁾. 무라가키가 탄 열차 페리도 바로 이 서스키한나호였다. 아래 그림은 삼사의 하나로 감찰역을 맡은 오구리 다다마사(小栗忠順, 1827-1868)²²⁾의 종자인 사토 도시치(佐藤籐七)의 여행기 『도해일기(渡海日記)』에 실려 있는 서스키한나호이다.



21) http://en.wikipedia.org/wiki/Train_ferry(2010.9.5.)

22) 1827년 에도에서 하타모토 오구리 다다타카(小栗忠高)의 아들로 태어났다. 1859년에 감찰(目付)이 되어, 견미사절의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이후 외국부교나 간조부교(勘定奉行), 군함부교(軍艦奉行) 같은 요직을 역임했다. 워싱턴의 해군공장을 견학했을 때 미국의 제철기술에 놀라 기념으로 나사를 가지고 귀국하여, 1865년 11월 요코스카(横須賀)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 일본 최초의 프랑수아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정봉환 후에도 막부편에 서서 주전론을 주장해 1868년 파면당해 은거하고, 그해 삿초군(薩長軍)에게 체포되어 42세의 아까운 나이에 참수당했다. 후일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는 그를 '메이지의 아버지(明治の父)'라 불렀다.

이처럼 무라가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놀라운 기공의 나라였다. 그가 비록 외국부교(外國奉行)란 자리에 있었지만 이 직책이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 조인 후 만들어진 것이기에²³⁾, 그가 가진 해외지식이란 것이 표류민의 견문기를 읽고 획득한 범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눈 깜박할 사이에 수 백개의 대포알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 높이 떠 있는 달을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보여주는 망원경, 그 무거운 철마를 신고 강을 건너는 열차 페리 등은 정말로 무라가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듯 아무렇지도 않게 눈앞에서 이루어내니, 말 그대로 기공이라고 탄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2. 진실을 가지고 다스리는 오랑캐의 나라

그렇지만 무라가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또한 예의가 없는 오랑캐의 나라이기도 했다. 사절단은 5월 17일(윤 3/27) 대통령 접견 예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국무성에서 국무장관 루이스 카스를 만났는데, 카스와 면담 후 무라가키는 “외국 사절을 처음 대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예도 없이, 평소 친한 사람이 온 것처럼 차도 주지 않고 끝낸 것은, 실로 오랑캐의 나라란 이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²⁴⁾고 했다. 즉 사절을 처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절에 대한 예우를 조금도 갖추지 않았다고 오랑캐의 나라라고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음날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절단은 백악관에서 뷰캐넌 대통령을 배알하고 국서를 전달했는데, 이때의 의식(儀式)은 타운센드 해리스(Townsend Harris, 1804-1878) 초대 주일공사가 쇼군(將軍)을 배알할 때 취하는 예와 똑같이 했다²⁵⁾. 그런 다음 미국의 요청으로 서로 악수²⁶⁾하며 인사말을 전

23)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국사대사전3』, 吉川弘文館, 1983년, 45쪽.

24) 村垣範正, 앞의 책, 220-221쪽.

外國の使節にはじめて対面したのに、少しの礼もなく、平常懇親の人の来たごとく茶さえ出さずじまいであったことは、じつに胡国の名ののがれがたいことと思われる。

25) 이런 점도 우리와 다르다. 일본사절은 미국공사가 쇼군에게 취하는 예절대로 미국 대통령을 대하겠다고 했다. 현대 외교에서 말하는 소위 호혜평등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사절은 본인이 조선 임금에게 취하는 예절대로 상대국 원수를 대했다. 그래서 10년 뒤인 1876년 제1차 수신사절 김기수는 메이지(明治)천황을 접견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했다(김기수, 『일동기유』, 국역 『해행총재』 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7년, 377쪽). 그리고 이것이 전례가 되었던 것인지, 일본사절단의 23년 후인 1883년 방미한 조선 최초의 견미사절단도 당시의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앨런 아더(Chester Alan Arthur, 1881~1885)에게 큰 절을 했다(김원모, 『한미수교사』, 철학과학실사, 1999년, 69쪽). 조선사절은 그때까지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었다고 해야 할까? 아무

하는 미국식 의식을 다시 한 번 진행했는데, 이날의 감상을 무라가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대통령은 70 넘은 노옹, 백발로 온화하고 위엄도 있다. 그러나 상인과 똑같은 복장으로, 검은 나사로 된 통소매 옷과 통 좁은 바지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칼도 차지 않았다. 고관들이라 해도 문관은 모두 같다. (중략) 합중국은 세계 1, 2위의 대국이지만, 대통령은 총독으로 4년마다 전국의 투표로 정한다고 하므로(올 10월 1일에 바뀐다고 한다. 다음 대통령은 틀림없이 **라고 한다. 투표니까 미리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자, 지금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건국의 법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국왕이 아니지만, 국서를 드렸으므로 국왕에 대한 예를 행했는데 상하의 구별도 없고 예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복(狩衣)을 입은 것도 무익했다고 생각한다²⁷⁾.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면 다음에 누가 될지 미리 아는 걸 보면 이 제도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등,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이 제도는 무라가키의 예상과 달리, 현재도 존속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미국은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노예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1790-1860년 사이 남부의 면화 생산량은 연간 1000톤에서 1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그 기간 동안 노예들의 수도 50만에서 400만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노예문제는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이 해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분출되었다. 실제로 이 해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 1809-1865)이 당선되자 사

튼 두 나라 사절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란 생각이 든다.

26) 노리마사는 이 악수, 특히 미소년들과의 악수를 매우 축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나중에 먼 회객들을 접견하면서 미국식으로 악수를 교환했는데, 미소년들과 악수하면서 일본의 풍습에서 보면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아마도 남색의 습관이 있었던 사무라이다운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7) 村垣範正, 앞의 책, 225쪽.

大統領は七十有余の老翁、白髪温和で威厳もある。しかし商人と同じ姿で、黒ラシャの筒袖、股引は何の飾りもなく、太刀も持たない。高官の人々といっても、文官はみな同じ。(中略) 合衆国は世界一、二の大国であるが、大統領は総督で、四年目ごとに国じゅうの入札(投票)で定めるよであるから(今年十月一日に代わるよし。あとの大統領は必ずだれなりと言った。入札だから前に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問うと、今の大統領の縁ある者という。さればこの建国の法も長くは続かないことと思われる)、国君ではないが、御国書も与えられたことであるので国王の礼を用いたが、上下の別もなく礼儀も少しもないので、狩衣を着たのも無益であったと思う。

우스캐롤라이나를 필두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여 남북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난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²⁸⁾. 일본사절은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아무튼 무라가키는 대통령을 접견할 때 예복 입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총독이므로 국왕은 아니지만, 쇼군의 국서를 전한 상대이기에 국왕을 대할 때의 예로 대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국서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구별도 없이 상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다. 이처럼 상하의 구별도 없고 예의도 없는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려 자기들만 예복을 입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평상복인데 이쪽만 예복을 입었으니 손해 본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신분에 따라 관복으로 상하를 구분하던 일본인 으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매우 당황스럽고 또한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²⁹⁾. 그는 다른 곳에서도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누가 관리이고 일반 시민인지 구별할 수 없다³⁰⁾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양인의 의복을 보고 상하의 구별이 없는 무례한 습속이라고 비난하던 일본인들이 이후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면서 급속히 서양화의 길로 접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화가 한창 진행되던 1876년 강화도조약의 답례사로 제1차 수신사절이 일본을 방문하자, 이번에는 조선사절의 관복을 보고 비웃는다. 물론 조선사절도 16년 전 일본의 견미사절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인의 양복을 비웃지만. 그런데 이러한 일본인의 모습을 보고 비웃은 것은 조선사절만이 아니었다.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의 일본 특파 화가 겸 통신원이었던 찰스 워그만(Charles Wirgman, 1832-1891)도 조선사절을 보고 비웃는 일본인을 향해, “자기들도 최근까지 이 손님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불쌍한 조선사절을 보고 절제없이 웃는다”³¹⁾며

28) 강준만, 『미국사산책3』, 인물과 사상사, 2010년, 74-90쪽.

29) 한편 무라가키의 이런 주장은 에도시대 일본인의 관복을 보고 조선통신사가 하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예를 들어 1719년 기해사절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은, 국서를 전달하는 자리에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가 목면으로 만든 옷과 집정이 쓰는 관을 쓰고 나왔으며 “정청(政庁)에 앉아서, 이웃 나라를 만나는 예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역시 예복이 아닌 옷과 신분에 당치 않은 관을 쓰고서 손을 대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좋아하여 풍속을 바꾸려 하는 것인가?”(신유한, 『해유록』, 『해행총제』 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534-535쪽)라며 비판하고 있다. 요시무네를 미 대통령으로, 신유한을 무라가키로 바꾸어 놓아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닮은 발언이다.

30) 村垣範正, 앞의 책, 234쪽.

일본인을 비웃고 있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조선이나 일본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무라가키는 스미소니언박물관(Smithsonian Museum)에 가서도 똑같은 감상을 털어놓았다. 스미소니언박물관은 사절단이 방미하기 5년 전인 1855년 완공된 것으로, 영국인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 1765-1829)이 ‘지식의 향상과 보급’을 위해 사용하라며 위탁한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건립된 것이었다³²⁾. 그는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를 보고나서 아무리 천지간의 만물을 구리(究理)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체를 조수충어(鳥獸虫魚)와 마찬가지로 늘어놓는 것은 할 말을 잊게 한다며, 이적(夷狄)의 이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즉 아무리 ‘지식의 향상과 보급’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해도, 사자를 이렇게까지 취급하는 것은 오랑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라가키에게 미국은 무례한 오랑캐의 나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로 하자.

4월 28일(윤3/9) 급수를 위해 파나마 지협(地峽)의 포르토벨로(portobello)에 정박해 있던 로아노크호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수병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무라가키는 5월 5일(윤3/16)자 일기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무렵 수부 중에서 중병인이 2명 사망했기 때문에 돛에 사용되는 두터운 목면으로 시체를 감싼 다음 밭에다 탄환(쇠구슬)을 달아 배 위에 꺼내 놓자, 승려(군목)가 와서 경전(성경)을 읽는 것 같았다. 제독(함장)을 비롯해 장교까지 모두 나와 떠나보내는 모양으로, 이윽고 음악을 연주하고 배의 좌우에서 바다로 던졌다. 아스핀월에 오랫동안 체재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다던가 해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배에서 죽는 사람은 누구나 장교 이상은 놓아두었다가 어딘가의 항구에 매장하고, 함장 등의 고관은 유리 용기에 넣어 본국으로 보내고, 수부 등은 수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라 한다. 매우 불쌍한 일이다. 그러나 수부 같은 자까지도 함장이 나와 떠나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의도 없고 상하의 구별도 없이, 그저 진실을 나타내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³³⁾.

31) Charles Wirgman, 「The Corean Embassy to Japan」,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76년 8월 26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응수의 앞에 나온 논문을 참조할 것.

32) http://en.wikipedia.org/wiki/Smithsonian_Institution(검색일:2010. 8.20.)

33) 村垣範正, 앞의 책, 212쪽.

장교들은 항구에서 매장하고 더 고관들은 유리 용기에 넣어 본국으로 후송하지만 수병들은 그냥 수장한다며 불쌍하다고 한 다음, 그렇지만 수병들의 장례식에 장교는 물론이고 함장까지 참석하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했다. 즉 일반 병사들의 장례식에 고관이 참석하면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것은 곧 상하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붕괴되는 사태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로서는, 미군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무라가키는 미국인들이 비록 상하의 구별이 없고 무례하지만, 또한 진실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이 상하의 구분이 없는 오랑캐의 풍습이기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진실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단순히 상하의 구별이 없는 오랑캐의 나라라 생각했던 무라가키가 여기서 미국의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한 것이다.

4월 2일(3/13)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주최한 환영 연회에 참석해서도 이러한 것을 느꼈다. 즉 연회에서 건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쁘게 말하면 에도 노무자들의 술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예절이라는 진실도 들어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일본식 예절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친밀함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5월 18일(윤3/29) 국무장관 카스의 주재로 열린 무도회에 참석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재상이 외국사절을 초청해 놓고 여러 무례를 범했지만 이 또한 친절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역시 자기들의 예절과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나 친절함 등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라가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기는 해도 또한 진실이나 친절 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제1차 견미사절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무라가키의 경우를

このごろ水夫のうちの重病人が二人死亡したので、帆木綿でなきがらを包み、足のほうに弾丸をつけて船の上に出すと、僧官が来て経をよむふうであった。コモドールをはじめ士官まで、一同出て送るもようで、やがて胡樂を奏し、船の左右から海に投じた。アスヒンワルに久しく滞在したため、病める者が多いとかで、みな恐れているようである。

すべて船中ではかなくなった者は、士官以上は置いておいていずれの港にでも土葬し、コモドールなど高官の人はガラスの器に入れて本国に送り、水夫などは水葬にするのが、ふつうの法であるよし。なかなかあわれなことである。しかし水夫ごとき者にも、コモドールまで出て送るのを見て、わが国の人は怪しんだが、かれは礼儀もなく、上下の別もなく、ただ真実を表して治める国であるから、こゝしたものと思われる。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미국은 먼저 놀라운 기공의 나라였다. 그는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그 위력에 놀라, 눈을 놀라게 하는 기공을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밤하늘에 높이 떠있는 달을 바로 눈앞에 있는 듯이 보여주는 천체 망원경이나 기차를 싣고 강을 건너는 열차 페리 등도 그를 경악케 했다. 이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근대의 기계문명, 무라가키는 이를 기공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증기기관이란 사실을 알고는 이를 하루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무라가키는 근대의 기계문명에 대해서는, 이를 접하자마자 바로 그 파워를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라가키의 눈에 비친 미국은 또한 오랑캐의 나라이기도 했다. 사절단을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란 사람이 차도 한 잔 안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까지도 국서를 교환하는 자리에 상하의 구별도 없이 상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등, 사절에 대해 조금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그야말로 이적(夷狄)의 나라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미국이 단순히 오랑캐의 나라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차렸다. 함장이 일개 수병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나 연회에서 사절들을 접대하는 예절 등을 보면서, 그 속에 또한 진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대식 제도나 문물에 대한 무라가키의 태도에도 변화가 보인다.

그가 미국인들을 접견할 때 일본적인 예절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예절로 대해야 한다(その国に行つてはその国の礼をもつて対すべきである)³⁴⁾”며 미국식으로 악수를 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티모어의 불꽃놀이를 보고는 료고쿠(兩國)의 불꽃놀이보다 훨씬 더 멋있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아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일본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기계문명만이 아니고, 근대식 제도나 문물에 대해서도 미국과 견주어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무라가키는 미국의 기계문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기술의 뛰어난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근대식 제도나 문물에 대해서는 일본식 기준으로 이를 평가해 오랑캐의 습속이라 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들과 접촉하면서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평가했던 그들의 문물 속에도 진심이나 진실, 친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근대식 제도나 문물에 대한 그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34) 村垣範正, 앞의 책, 233쪽.

【참고문헌】

- 김기수(1977), 『일동기유』, 국역 『해행총재』 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377
신유한(1986), 『해유록』, 국역 『해행총재』 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p.534-535
新見正興(1961), 「並行詠」、『万延元年遣米使節史料集成全七卷』第2巻、日米修
好通商百年記念行事運営会編、風間書房、p.370
村垣範正(1961), 『航海日記』, 『世界ノンフィクション全集』14、筑摩書房、p.p.236-237
강준만(2010), 『미국사산책3』, 인물과 사상사, 2010년, p.p.74-90
곽영직(2010), 『과학기술의 역사』, 북스힐, 2010년, p.p.179-185
김원모(1999), 『한미수교사』, 철학과현실사, 1999년, p.69
유종선(2006),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 가람기획, 2006년, p.p.167-170
정응수(1991), 「근대문명과의 첫 만남」, 『한국학보』 제63집, p.p.106-124
国史大辞典編纂委員会(1983), 『国史大辞典』3、吉川弘文館、p.45
東善寺(2007), 『遣米使節三船』, 東善寺
宮永孝(2005), 『万延元年の遣米使節団』, 講談社学術文庫、講談社、p.p.295-296
レイモンド服部(1968), 『77人の侍アメリカへ行く』, 講談社、p.19
Charles Wirgman(1876.8.26), 「The Corean Embassy to Japan」, 『The Illustrated
London News』

<http://www.bartleby.com/142/101.html>(검색일:2010.5.10)

<http://www.usno.navy.mil/USNO/about-us/brief-history>(검색일:2010.7.5)

http://en.wikipedia.org/wiki/Smithsonian_Institution(검색일:2010. 8.20.)

http://en.wikipedia.org/wiki/Train_ferry(2010.9.5.)

要 旨

本稿は、幕府の第一次遣米使節(1860)が近代アメリカをどのように見ていたか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テキストは第一次遣米使節団の副使であった村垣範正(1813—1880)の著した『航海日記』を使用した。

村垣の目に映ったアメリカはまず「奇工の国」であった。彼は蒸気機関を使って様々な作業が進行されるのを見て、目を驚かす「奇工」だという。そしてこれを一刻も早く日本へ導入したいと思った。

彼が見たアメリカはまた「夷狄の国」でもあった。国務長官が使節と初対面するのに、少しの礼もなく、お茶さえ出さないのを見ると、本当に胡国に違いないという。だが、艦長までが水兵の葬式に参加するのを見て、その中に真心が潜んでいることをもわかる。彼がアメリカ人を面会するとき、その国に行ってはそこの国の礼をもって対すべきであると言いながら、アメリカ式で握手をすることにしたのも、このためであろう。

すなわち、村垣はアメリカの機械文明については、最初からそれを認めた。しかし、近代的な制度や文物については、日本的な基準を持って、これを夷狄の習俗と評価した。ところが、彼らと接触しながら、彼らの文物のなかにも真心や真実などが含まれていることに気づく。そして、そのために近代的な制度や文物に対する彼の態度も、好意的に変化し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第一次遣米使節、村垣範正、航海日記、ウォルト・ホイットマン、奇工の国、夷狄の国

투 고 : 2010. 8. 31
1차 심사 : 2010. 9. 11
2차 심사 : 2010. 9. 25